2012-창간호-02-0406-신보:창간호-2 2012-04-19 오

中源新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No. 1 2012년 3월 2일(금)/계간

발행인·홍기형 | 발행처·중원대학교 교육정보출판국
주소·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전화 043-830-8271 | FAX 043-830-8279 | www.jwu.ac.kr

중원인은 내일의 세상을 경영할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는데서 시작합니다!



▲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중원대학교 전경.

글로벌 “중원신보”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진교육재단 설립자
安 永 日 理事長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그 중심에서 웅비하는 ‘중원신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 재단은 종단 대순진리회를 설립주체로 하는 법인으로 종단을 창설하신 우당 박한경 도전님의 교육사업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해원상생을 근본으로 하는 대순진리회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제화된 새로운 모델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목표로 상생의 마음가짐과 첨단 과학기술의 탐구를 바탕으로 후진을 가르쳐 참신하고 실전에 강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 속의 중원대학교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중원대학교는 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誠, 敬, 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구현함으로써, 첨단물질문명의 이기속에서 상실된 인성을 회복하고, 도덕적 가치혼란을 극복하여 정신문화의 창달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誠)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신지식인 육성과 무한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둘째, 도덕적 양심(敬)으로 인간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인재 육성을 위한 윤리교육의 배움터를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믿음(信)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지도자를 육성해 상생공동체 건설에 공헌할 것입니다.

‘중원신보’는 이러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의 건학이념과 발전상을 담아 내는 큰 장으로써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며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하며 도전과 발전을 함께 하는 ‘중원신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세상의 중심에서 中源을 말하다

상생의 설립이념·성실, 경건, 신념의 교훈 바탕
미래사회 주도할 글로벌 인재의 육성 목표












중원대학교의 설립재단은 교육·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구호자선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여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진대학교와 대진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고등학교를 건립하여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대진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한 학업을 장려하고 있다.

대진교육재단은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국제화된 새로운 모델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목표로 상생의 마음가짐과 첨단 과학기술의 탐구를 바탕으로 후진을 가르쳐 참신하고 실전에 강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 속의 중원대학교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중원대학교는 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誠, 敬, 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구현함으로써, 첨단물질문명의 이기속에서 상실된 인성을 회복하고, 도덕적 가치혼란을 극복하여 정신문화의 창달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설립의 근본 뜻이 있다.

그 설립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지극한 마음(誠)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첨단교육의 장을 열어 무한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양심(敬)으로 인간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인재 육성을 위한 윤리교육의 배움터를 세워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셋째, 한결같은 믿음(信)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지도자 육성을 위한 평화교육의 요람을 만들어 상생공동체 건설에 공헌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은 매사에 성심성의를 다하는 "상생하는 세계인, 창조적인 문화인" 육성을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아, 첨단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춘 첨단교육·문화교육·평화교육의 배움터를 세워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참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간 정신의 구제와 함께 사회와 민생을 구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 구호자선, 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

◉ 의료사업-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 제인한방병원(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 분당제생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동두천제생병원(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 고성제생병원(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법인 대진복지재단

·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 양주 대진요양원(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 동해보양온천 컨벤션호텔(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 구호자선사업

불우한 이웃을 돕고 소외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자혜(慈惠)를 베풀며 불의의 재난을 입은 이재민을 구호하는 등의 구제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불우한 이웃과 아동을 돕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자연재해를 당한 이재민 돕기, 양로원·고아원돕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 교육사업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은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충북 괴산에 중원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강원도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에 강원종합박물관을 설립하였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대진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선행청소년, 불우청소년의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통문화보존 사업 등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 중원대학교(충북 괴산군 괴산읍)

· 대진문화장학재단

· 강원종합박물관(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 대진대학교(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 대진외국어전과학교(중국 헤이룽장성)

· 대진고등학교(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 대진여자고등학교(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 분당대진고등학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대진디자인고등학교(서울시 강남구 수성동)

· 일산대진고등학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중원신보”창간호를 내면서

인성교육, 학술탐구의 모습과 그 성과 공유 가능
“중원벌”, 인재 배출의 터전
세계화 지향, 새로운 학문지평 결집 공간, 中源新報



홍기형 총장

먼저 우리 중원대학교 소식지인 “중원신보”의 발간을 모든 중원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직은 우리 대학이 역사와 전통면에선 일천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펼쳐가고 인성교육과 학술탐구의 모습, 성과는 이미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원대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괴산은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원벌”로서 일찍이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터전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원대가 이곳에 터를 잡고 세계지향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유서를 되새기면서 중원대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도약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짐해 보도록 합시다.

총장은 진작부터 우리 중원인 모두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학습의 장(場)으로서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열어가는 노력들을 나누고 결집 할 수 있는 중원인 소식지의 발간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중원신문”은 중원인의 모습과 특성을 결합하고 융합해 가는 역할과 기능을 마음껏 꾸며가기를 바랍니다.

중원대학교 ‘中源新報’ 창간 축하메시지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 ‘미래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 중원대학교의 ‘중원신보’ 창간을 축하합니다.

우리 충북은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토대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기 위한 밑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이 가득한 중원의 인재들이 앞으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줄 훌륭한 리더가 되어 주길 기대하며, 중원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원신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 용
충청북도교육감

▲ ‘상생의 설립이념과 성실, 경건, 신념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전력하는 중원대학교의 『중원신보』 창간을 충북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마스제퍼슨 대통령은 “우리가 신문이 없는 정부를 가져야 할지 정부가 없는 신문을 가져야 할지라는 것에 대해 내가 결정해야 한다면, 난 후자를 선택함에 있어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고도의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정보가 곧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부(富)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중원대학교의 학생문화 창달과 정보화를 선도할 『중원신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와 변화를 번영과 발전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서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중원신보』이 새롭게 태어나 첫출발을 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의 참신한 감각과 꿈과 열정의 도전정신으로 충북은 물론 대학을 대표하는 명품신문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중원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 각 수
괴산군수

▲ 성실, 경건, 신념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중원대학교의 학보창간을 축하합니다.

학문과 지성을 겸비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중원대학교의 힘찬 비상(飛上)과 함께 국제 사회의 특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 ‘중원신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중원인들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됨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세계로 나가는 공간이 되리라 확신하며 가슴 벅찬 감회를 모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중원의 이름을 알리며, 어느 곳에서도 중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선망받는 우리 대학의 알찬 정보와 능력, 존재를 지면을 통하여 읽고자 합니다.

- 이종규 대외협력 부총장

▲ ‘중원신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합니다.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중원대 모든 구성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글로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창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 석수길 기획경영처장

▲ ‘다양한 정보와 정론으로 중원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태수 교학지원처장

▲ ‘중원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있길 기원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 주길 부탁합니다.’

- 김형수 산학협력단장

▲ ‘기대 이상의 창간호, 중원가족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장이네요.’

- 나항진 입학홍보실장

▲ ‘중원인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중원 대신문이 우리들의 참마음의 소리를 함께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 홍영숙 국제언어교육원장

▲ ‘뜻깊은 창간을 축하하며, 힘차게 출발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 민승희 학술정보원장

▲ ‘중원신보! 첫 창간을 축하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오래, 더 멀리가서 더 많은 사람이 보는 학보가 되길 바랍니다.’

- 김은정 평생교육원장

▲ ‘牛步千里！ 중원신보 창간을 축하합니다.’

- 김두년 생활관장

▲ ‘중원신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중원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 이지연 의료공학부장

▲ ‘중원신보 창간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알찬 소식지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 한형서 사회과학부장

▲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창간호의 한걸음이 더 큰걸음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 홍승린 국제비지니스학부장

▲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우리 중원인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담은 중원신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윤정아 의료보건학부장

중원대, 2012학년도 신입생 1143명 입학
전 학년 편제 완성, 세계적인 명품대학 틀 마련

중원대학교(총장 홍기형)는 2일 대강당에서 2012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 1135명과 석사과정 8명,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입학식을 가졌다.

이로써 2009년 3월 2일, 대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대한민국의 중심 괴산에서 개교식과 입학식을 가진 중원대학교가 만 3년만에 전 학년 편제를 완성했다.

중원대학교는 대진교육재단 이사진들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정범구 의원, 임각수 괴산군수, 김한선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계중심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공학과 박진호, 간호학과 민순지, 간호학과 김미희, 간호학과 이상규, 간호학과 김미예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기형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원대학교가 이제 편제가 완성됨에 따라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틀을 마련했다” 면서 신입생들에게는 “인성을 갖추고 세계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원대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신입생들을 위해 이날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캠퍼스 내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한편 홍기형 총장은 임각수 군수의 축사에 앞서 세계 유기농 명품군 이미지 제고와 최고의 학교시설 개방,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등으로 괴산군민의 문화창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 신입생 대표 의료공학과 박진호 학생과 간호학과 민순지 학생이 신입생 선서를 하고 있다.

지 면 안 내

설립자 축사 / 대진교육재단 소개 2면
총장 발간사 /창간 축하메시지 3면
김도완 교수, 국가 공모사업비 60억 유치 5면
영국 명문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와 MOU 체결 6면
중원대 ‘오감도’ 2011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 우수활동상 수상 7면
중원대, 국제적 수영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8면
사진으로 본 중원대학교 2007 ~ 2012 11~12면
영어특집면 17~18면

중원대 최고경영자과정 4기 입학식 열려



중원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4기 입학식이 8일 오후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중원예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홍기형 총장을 비롯한 중원대 보직교수, 임각수 괴산군수, 이중훈 농협 괴산지부장, 최영진 괴산경찰서장, 윤남진 괴산군의회 의원, 지용옥최고경영자과정 1기 회장, 김진영 최고경영자과정 2기 회장, 안광조 최고경영자과정 3기 회장 등 20여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신입생으로는 육군학생군사학교 근무지원단장 장평기 대령, 송인헌 음성군 부군수, 김형탁 전 양궁국가대표감독 등 33명이 입학해 최고경영자과정을 밟게 됐다.

이날 홍기형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고가 되려면 나 자신을 최소한의 차별화해야 하고 성공적인 삶과 관련된 7가지 주요 변인 야망(꿈), 열정(끼), 기개(깡), 요령(꾀), 외모(꼴), 인간관계(끈), 마무리(끝)를 한번쯤 상기하라”며 “창조적 경영인, 성실한 사회인, 보편적 문화인으로서 늠름하게 사회에 공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람다운 사람’을 위한
201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져

중원대학교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일까지 1박 2일간 2012년 신입생 오린엔테이션을 열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을 응원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기숙형 대학의 특성에 맞게 신입생들의 조기적응과 학업 동기를 유발하고 대학생의 긍지와 자기 확신을 북돋아주기 위해 준비했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첫 날에는 ▲영어능력 파악을 위한 Placement Test ▲대학생활 안내 ▲충북도립 교향악단의 축하공연▲나의 학과 알아보기를 이튿날은 ▲ 생활관 생활지도/ 안내 ▲ 학사/ 수강신청 안내 ▲ 장학 및 학자금 안내 ▲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안내 ▲ 학생지원서비스 안내 ▲ ‘대학생의 진로설계’ 특강 ▲ 신입생 장기자랑 ▲ 환영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의 진로설계’ 특강은 FUN에너지연구소 김충현 소장이 ‘내인생 성공 스케치’란 주제로 대학초년생들의 도전정신과 공적가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충북도립 교향악단의 축하공연은 그동안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봄꽃 향기가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한 신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원해줘 열리게 되었다.

신입생 장기자랑 경연대회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학생운영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선배들의 동아리 공연으로 입학을 축하해 주고 이에 답하듯 신입생들은 그동안 숨겨온 끼를 맘껏 펼친 신입생 학과별 장기자랑 시간가졌다.

교학지원처장 이태수 교수는 “특히 이번 행사는 주인공인 새내기를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발벗고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가하면서 “이번 새내기 프로그램은 단순히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감과 감동의 시간을 주었다”고 말했다.



▲ 중원대학교 ‘201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장기자랑 경연대회에 참가한 신입생들.



▲ 충북도립 교향악단이 ‘201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 외국어 전담 교원 소개

산학협력단, 연구수혜액 1600% 증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사업 유치
향후 산학협력단의 미래 밝을 전망

2012년 3월 17일은 중원대 산학협력단이 3돌이 되는 날이다.

3년 전,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신지식과 첨단기술을 창출, 공유 확산하기 위한 산학 연계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대학은 물론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6개의 입주업체와 7개의 연구소로 출발해 2009년도 총 연구비 수혜액은 6천 7백여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후 2010년 제 2대 산학협력단장으로 김형수 교수가 취임하면서 부터 조직정비와 각종 연구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을 위한 icoop생협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역의 기술 공동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주)휘닉스피디아와의 업무협약 체결, IT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사)한국IT융합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괄목상대할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 결과 2010년도 연구과제 16건, 총 연구비 총수혜액은 4억 7천 5백여만원으로 700%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은 또 다른 성장의 단계를 거친다.

2010년 4월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참여기관(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업연수원, (재)충북 테크노파크, (주)세화에너지산업)간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대원전기교육원과의 업무협약 등 각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규정을 제정했다.

차근차근 한단계씩 성장하던 중원대 산학협력단의 성과는 2010년 후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원대-괴산군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과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괴산 시골절임배추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이었다.

이로써 2010년 총 34건의 과제, 총 연구비 수혜액 10억 7천만원으로 2009년 대비 연구비 수혜액이 1,600%가 증가했다.

2대째 산학협력단장을 연임중인 김형수 교수는 “최선을 다해준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덕분이다”며 “향후 중원대 산학협력단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산학협력단은 11개 입주업체와 8개 연구소로 운영중이다.



중원대학교, 개교 2년만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중원대학교는 지난 해 5월 11일 개교 2년만에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중원대는 이번 지원 사업에 제출된 9개 교육지표 현황 중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9년 신설된 학교로 개교 2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보여 주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중원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모두 8억9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재학생 1인당 약 1백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번 중원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크게 장학금 지원,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분야, 기초역량 및 인성교육강화 분야, 전공교육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환경개선 분야로 나누어 자금을 집행했다.

특히,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 영국, 태국

정부 지원금
8억 9300만원

학생1인당 교육비
전국 3위

장학금 지급률
전국 4위

교원확보율 *105%*

현지 해외연수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동계 방학기간 중 교내에서 실시한 JWU JOB 영어캠프 등은 재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한편 이번 사업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분야에서는 30개 이상의 지역 기업체와 함께 현장실습 학점제를 운영하고 전문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종사자를 산업체 겸임교수로 위촉해 운영했다.

위촉된 산업체 겸임교수들은 현장 밀착형 수업 형태의 캡스톤디자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실무학습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켰다.

중원대학교 기획경영처장 석수실 교수(법학과)는 "지난 2009년 개교이후 재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중원대학교 전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상생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 온 결과물"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기초역량 및 인성교육 강화, 전공교육



▲ 지난 해 6월 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JWU English Drama Contest'에 참가한 중원대 재학생들.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 교수학습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등의 세부사업에 집중 지원해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1년 단위사업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수준,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학사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인상률, 대입 전형지표등을 '교육지표 포뮬러'에 따라 평가한다.

김도완 교수(한방산업학부), 국가 공모사업비 60억 유치

지경부 유기가공식품사업단·농식품부 괴산 시골절임배추사업단 3년~ 6년 운영

향토자원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 기대



▲ 지난 해 10월,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 중원대·괴산군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단 출범식에서 중원대를 비롯한 각 계 기관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지난 해 11월 17일 지역 대내외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2012년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유기가공식품사업단 (사업 총괄책임자: 중원대학교 한방산업학부 김도완 교수)에 선정된 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선정'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3년간(2012년~ 2015년)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 29억 3100만 원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은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자부담 15억원)씩 지원투자된다.

유기가공식품사업단은 향후 친환경 유기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괴산군의 기존사업을 유기가공식품 산업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친환경 유기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신규의 유기가공식품 개발, 천연물 유래의 식물성 색소, 향, 방부제 등의 소재를 개발하고, 괴산에서 기반을 마련한 유기가공식품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켜 광역권으로 발전시켜 관련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괴산시골절임배추 향토산업 육성사업단 사업기간동안 괴산의 주요 농.특산물인 절임배추는 그 활용가치가 뛰어난 향토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가지(Branch)산업을 육성하고 절임배추의 연중생산화와 타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절임배추(항암배추)의 생산 및 産.學.硏.官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명실상부한 절임배추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3년간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와 자부담 15억원)이 투자된다.

▲ 사업추진 배경 ?

우리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괴산군은 일찍부터 한살림과 흙살림, 자연농업연구원 등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괴산군에서도 2007년 친환경 농업 군을 선포한 이 후 친환경 유기 농산물 생산 및 재배 면적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괴산에서 생산되는 유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기능성을 갖춘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고부가 기능성 유기가공식품 육성 사업단"을 만들게 되었다.

충북 및 괴산군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최초로 "친환경유기농식품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2010학년도 1학기에 강의하면서 괴산군 및 충북의 친환경 유기농업 현장 및 식품가공 공장을 견학 한 바 있으며, 이때 괴산군 산업을 고부가 유기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사업단 유치시 힘들었던점 ?

현재 소비자들은 친환경 유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화학 색소나 방부제 등 인공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 해서 만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대학 역사가 짧아 큰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였으나, 한방산업학부 동료 교수님들과 관련 교수님들이 적극 힘을 모아 주셔서 유치하게 되었으며,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 사업유치로 인한 도움은?

먼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취업기회의 문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괴산군은 산업이 극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본 유기가공식품사업단과 절임배추사업단이 3년에서 최장 6년간 운영됨으로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가공산업이 활성화 되어 최소 40개 이상의 중견 식품가공공장, 연구소와 식품산업진흥센터 등이 새로 생기게 됨으로 현장실습 장소 제공과 신규 고용 창출이 늘어 날 것은 분명하며, 괴산군에 위치한 우리대학 출신이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식품가공 및 기능성 식품 신제품 개발 외 식품가공공장 및 부대시설의 경우 저탄소 배출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자원공학부와 한방산업학부, 의생명과학과 등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제품 디자인 개발이나 캐릭터 개발 등은 산업디자인학과와 연계할 수 있다.

파워인터뷰



김 도 완 교수
한방산업학부

▲ 향후 계획 ?

지식경제부 유기가공식품 육성 사업단과 연계되어 2015년 9월~10월 한달간 세계유기농엑스포가 괴산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국내외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큰 행사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친환경 대체에너지 관련 체험 및 전시이다. 이 행사 때 외국어 교육 특성화, 친환경 대체 에너지 관련 인프라, 한방 및 의생명 중심의 학과에서 개발한 제품 등 우리대학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예정이다.

절임배추사업단과 유기가공식품 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대학이 지역의 향토자원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 관점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산업 활성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이 말이 제대로 공감이 된다. 또한 유기식품과 유기화장품까지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유기(organic)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국 명문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와 MOU 체결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졸업생 취업률 1위 대학
산업수요에 맞춘 맞춤식 교육과정 특징



▲ 홍기형 총장과 함께 영국의 명문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를 방문한 '영국 문화 체험단'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가 유럽의 대학과 학술·인적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0월 26일, 홍기형 총장은 영국의 명문 노팅엄 트렌트 대학을 방문해 양교간 학술·인적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교는 이번 협정을 통해 교환학생 교류, 교직원 교류, 학사, 석사 공동학위제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유명한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졸업생 취업률이 1위인 대학교이다(HESA, Higher EducationStatistics Agency / 2006년 7월). 졸업생의 97.7%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인턴 사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영국의 명문대학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 대해 노팅엄 트렌트 대학 관계자는 "전세계 산업의 수요에 맞춘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만의 교육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홍기형 총장은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 우리대학은 유럽 소재 명문 대학들과 교수, 학생 파견 및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의 문을 두드리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복수학위제 시행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시행하게 돼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됐다"고 교류 협약의 의미를말했다.

협정식 이후 12월 7일,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의 교육대학 학장인 길 스캇교수가 본교를 방문해 협약식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노팅엄 트렌트대학교의 설명회를 가졌다.

'창업에 도전하라' 중원대, 창업 심포지엄 개최

대학역량강화사업 일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창업경영에 도움 예상

본교는 11월 22일(화), 오후 2시 중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창업경영을 모색하기 위한 창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젊은이여! 창업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다인스 준코 김성훈 회장의 '성공적인 프렌차이즈 기법' 등을 비롯하여 세가지 컴퍼니 김영애 대표, (주)리딩엠 황종일 대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동제 과장, 주성대학교 김영호 교수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번 창업 심포지엄에는 충북지역 내 대학생들과 신규창업예정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내 저명 창업컨설팅 전문가와 실제 성공 창업 사례자를 비롯해 국가의 창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 권위 있는 연사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신과 실제적 준비 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또한 중원대학교는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창업 동아리 활동과 실제 학생들의 창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번 행사의 의의를 더욱 크게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 창업 심포지엄을 통해 중원대학교와 충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 경험을 통해 보다 실무적인 사회 인재가 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원대-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산학협력 MOU 체결



중원대학교와 (사)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회장 박일순)가 지난해 9월 29일 산학협력 교육, 연구, 사업을 통해 충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주요 협약 내용은 ▲산학협력 교육, 연구, 사업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대학의 연구 성과, 첨단기술, 지식을 기업에 이전하여 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시설기자재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공동활용 및 연구자료 협력 ▲교원 현장 연수 및 학생 현장 실습에 대한 협력 등 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아시아 솔라밸리를 표방하는 충북의 태양광산업의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지열에너지설비와 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원대학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생의 견학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체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2년 후부터 배출될 졸업생들의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무메카, 중원대-학군교 학·군 교류 협약



▲ 홍기형 총장(오른쪽)과 조병오 소장(왼쪽)이 학군교류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근 이웃사촌이 된 중원대학교(총장 홍기형)와 학생군사학교(학교장 소장 조병오)가 지난 해 11월 18일 오후, 중원대학교에서 학.군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원대 총장과 학생군사학교장은 물론 양교의 모든 보직교수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학.군 교류협약은 양 기관이 큰 틀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임을 상호인식하고 항구적 상생관계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발전적 학.군 교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날 △학·군 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 중원대 군사학부 및 학군단 창설 △학군교 간부들의 입학 조건, 학비 감면 △ 강사 지원 등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해 협약했다.

양교 관계자는 "충북 괴산에 함께 할 양 기관은 향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 문.무 협력의 상징으로 학.군 교류의 모범사례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원대학교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산학협력 MOU 체결

중원대학교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KICOX) 충청권본부(본부장 채병용)는 20일 중원대학교에서 충청권 산업단지 입주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IT·SW·컨텐츠 등 지식기반산업의 충북·충남·대전 산업단지에 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교육, 양성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핵심기술 및 애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재취업,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중원대 보유기술 이전 지원 △ 미니클러스터와 중원대 산학협력 사업단과의 교류협력 △융합분야 고도화 정책기획, 유망 서비스 기술 발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공안부 대표단, 중원대 방문

양국 기관 간 정보.인적 교류 분야 협력방안 논의

베트남 공안부(Vietnam Ministy of Public Security) 대표단(단장 TA VAN BANG)이 2012년 1월 27일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중원대학교를 공식 방문했다.

이날 중원대학교와 베트남 공안부 대표단는 양국 간 정보·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공안부 산하 2곳의 베트남 경찰대학(People's Police Academy, People's Police University), 베트남 안보대학(People's Security Academy)과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간의 교류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협력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다.

대표단장인 타반친 대령은 "중원대학교의 훌륭한 시설과 교육지원 시스템에 만족하고 경창행정관련 교육체계와 인적교류를 진행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중원대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홍기형 총장은 "베트남 공안부가 우리 학교의 교육시설과 시스템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경찰행정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유학생 유치와 한국형 교육시스템 모델의 베트남 현지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원대 '오감도'(신민정, 이현주, 정지영, 백지선, 이신혜), 2011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 우수봉사활동상 수상



▲ 오감도 팀장 신민정 학생(의료정보학과 4)이 한국과학창의재단 김동곤 단장으로부터 우수봉사활동상을 수상하고 있다.



▲ 제 6기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에 참가한 오감도(왼쪽사진, 정지영, 신민정, 백지선 학생), J.V.S(오른쪽 사진, 정유경, 이혜인, 김지니 학생)

중원대 '오감도(팀장 신민정 의료정보학과 4, 이현주 의료공학과 4, 정지영 의생명공학과 3, 백지선 의생명공학과 3, 이신혜 의생명공학과 3)'팀이 '과학 더하기, 지식 나누기, 꿈 곱하기'를 주제로 지난 해 여름방학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 활동에서 우수 봉사활동상을 수상했다.

이 6기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 봉사활동은 93개팀 631명이 4박5일의 일정으로 전국 산간 벽지를 포함 86개 학교와 7개 복지시설을 찾아 펼친 '아름다운 나눔'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봉사단에서 14개 팀만 우수봉사활동상을 수상했으며 '오감도' 팀은 의료공학과 3년 심민정 팀장을 주축으로 5명의 중원대 여학생들로 구성됐다.

신민정 학생은 해단식에서 4박 5일간의 과학봉사활동에서 느낀 소감을 사례발표시간에 감동 있게 발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오감도'의 팀은 중원대 의료공학과, 의료정보과 등의 선후배 여학생들로 이뤄졌다. 이번 과학봉사활동을 위해 2달 동안 준비해서 강원도 거진의 거성초등학교로 이동했다. 팀명은 표면염색(시각), 표면장력(촉각), 천연향수만들기(후각) 등 오감을 테마로 실험을 준비해서 팀명을 오감도로 지었다.

오감도 팀장 신민정 학생은 "거진의 거성초등학교가 봉사활동 대상 학교 중 가장 먼 곳에 위치해 가느라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했고, 여학생들만 구성이 된 팀이라 더욱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여름 피서 철이라 방 구하기도 힘들어 마을회관에서 자야 했고 실험을 하다가 도중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린 학생들 앞에서 당황스럽고 민망했다"며 당시 봉사활동의 어려움과 소감을 전했다.

의생명공학과 정지영 학생은 "우리가 맡은 지역은 강원도의 외진 지역이어서 전반적으로 생활형편이 안 좋은 곳이었다."며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과학실험을 접하기 힘들었고, 우리가 하는 실험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반응도 매우 좋았고, 우리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6기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에 중원대학교는 '오감도'를 비롯해 J.V.S(팀장 정유경), S.C.V(팀장 박정현) 등 3팀이 참가해 뜻 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6기에 이어 7기 동계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에 가온누리팀과 S.C.V팀이 선정되었다.



'JWU JOB English Camp' "Excellent!"

중원대학교는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 해 1월 7일까지 2주간 대학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언어교육원 주관으로 'JWU Job English Camp'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재학생 중 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 39명을 선발해 2차에 나눠 4박 5일간 진행되었으며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취업 영어의 기술은 물론 다양한 주제를 통한 재학생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교육과정 중 눈에 띄는 점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만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집중 단기 캠프 형태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실전과 다름없이 매일 진행되는 영어인터뷰와 상황별 면접 대비법, 각종 영어입사서류와 비지니스 글쓰기 과목은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국제언어교육원 홍영숙 원장은 "프리젠테이션 영어 강좌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영어로 사고하는 스킬 및 논리적 사고 능력은 물론 팀별 Presentation 준비 및 실전 연습을 통해서 협동심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했다.

캠프를 수료한 김소영(사회복지학부 2년)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특히 취업영어의 필수요소인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앞으로 영어학습에 더욱 더 전념하는 동기부여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보라 학생(문화스포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3),

'2011 중독예방 현상공모전' 포스터 부문 장려상 수상

김보라(IT공학부 산업디자인전공 2년)학생이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가 주최한 '2011 중독예방 현상공모전' 포스터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강원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가 일반 국민에게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게임 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UCC동영상, 포스터와 체험수기 부문으로 나눠 개최됐다.

각 부문의 많은 참가자들로 인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졌으며 특히, 포스터 부문에서는 약 1,000여점이 출품된 가운데 1%만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김보라 학생은 '1/64,974의 확률을 가족의 사랑과 바꾸시겠습니까?'란 작품으로 장려상과 함께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김보라 학생을 지도한 박성억 교수(산업디자인과)는 "일반적으로 상위 입상자들은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대학원생이나 대학 3,4학년생이 대부분인데, 이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상위권에 입상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모전, 경상북도 캐릭터 디자인 콘테스트와 구미 멀티미디어 공모전 등 주요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 큰 성과를 거두어 산업디자인 분야 명문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보라 학생
산업디자인학과 3



▲김보라 학생작품 : 1/64,974의 확률을 가족의 사랑과 바꾸시겠습니까?

제 3기 학생홍보대사 임명

이푸르나(국제비지니스학부 2)등 14명 영예 안아

중원대학교는 11월 15일(화), 오전 10시 본관 3층 Conference Room에서 중원대학교의 명품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할 제3기 학생 홍보대사 14명에 대한 임명식 과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발 된 학생 홍보대사들은 1차 서류전형을 거쳐 우리 학교의 특장점을 주제로 한 PT면접의 까다로운 2차 선발과정을 거쳐 오프라인 활동 홍보대사 10명, 온라인 활동 홍보대사 4명이 각각 선발되었다.

앞으로 1년간 우리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내외 홍보활동, 대학홍보물 이미지 모델, 입학정보박람회와 설명회 참여, 캠퍼스 투어 안내,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운영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원대학교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오프라인 홍보대사(14명)=강성연(국제비지니스학부 1년), 김수진(국제비지니스학부 1년), 김애솔(IT공학부 1년), 박정희(사회과학부 1년), 서별이(IT공학부 1년), 이승현(사회과학부 1년), 이푸르나(국제비지니스학부 2년), 임성환(사회과학부 1년), 전아라(IT공학부 1년), 현진선(의료보건학부 1년)

◆ 온라인 홍보대사(4명)=김상길(사회과학부 1년), 유예진(국제비지니스학부 1년), 정은혜(사회과학부 1년), 홍민주(한방산업학부 3년)



▲ 첫째 줄 왼쪽부터 이푸르나, 김수진, 서별이, 김예슬, 전아라, 홍기형 총장, 현진선, 유예진, 홍민주, 두번째 줄 왼쪽 강성연, 임성환, 이승현, 박정희, 정은혜, 김상길 학생홍보대사

중원대, 국제적 수영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최근 중원대학교가 수영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중원대 연암수영장의 열기는 혹한의 날씨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국제규격의 8개 레인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현 일본 수영국가대표팀 감독인 우에노 코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일본 수영의 최고 명문팀인 니혼대학교 수영부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중원대학교에서 2주 동안의 동계 전지훈련 캠프를 시작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시아 수영계 두 거장 노민상 교수·일본 우에노 코지 감독, 중원대와 일본 니혼대 합동훈련 함께 지휘

특히 이번 전지훈련 캠프기간 중에는 아시아 수영계의 두 거장인 노민상교수의 중원대학교 수영부, 에이지 클럽과 우에노 감독의 니혼대 수영부가 2차례의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2012년 흑룡의 해, 훈련 첫날인 2일에는 노민상교수가 합동훈련을 주관하고 8일에는 니혼대 우에노 감독이 두 팀을 연합해 훈련을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전지훈련의 마친 우에노 감독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수영 전지훈련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은 물론 모든 훈련과정에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 중원대학교와 괴산군민들에게 감사한다"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전지훈련과 합동훈련을 유치하고 계획한 노민상 중원대 교수는 "양 대학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훈련을 진행해 동계훈련의 효과가 한층 배가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국제적인 훈련 캠프를 정기적으로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 해 12월 24일 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중원대에서 진행된 일본 니혼대학교 수영팀의 동계 전지훈련이 1월 9일 종료되었다.

한편 일본 니혼대학교 수영팀은 중원대에서의 훈련이 코치진은 물론 선수들에게 크게 만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오는 8월에 있을 하계 전지훈련지로 중원대로 결정해 다시 한번 중원대를 찾게 될 예정이다.



▲ 2차 합동훈련을 마친 중원대 수영팀과 니혼대 수영팀.



▲ 노민상 교수를 비롯한 양팀 코치진들이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지켜보면서 훈련을 독려를 하고 있다.



▲ 홍기형 총장이 일본 수영국가대표팀과 니혼대학교 수영팀의 우에노 코지 감독의 예방을 받았다. 왼쪽부터 홍기형 총장, 우에노 감독, 구라사와 코치, 민승희 교수.

크로스컨트리서 금메달 지적장애 수영선수 조원상(레저스포츠학과 1)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



2012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 예정인 지적장애인 수영 선수 조원상 학생(문화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학과 1)이 겨울 종목인 스키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조원상 학생은 지난 2월 22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자 크로스컨트리1㎞디비전1에 깜짝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을 목표로 방학기간중 중원대학교에서 훈련해온 조원상 학생은 이번 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잠시 학교를 떠나 있다.

잠시 스키를 하고 있지만 조원상은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줄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그는 2011년 장애인전국체전 수영 종목에서 남자 100m 및 200m 자유형 S14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하고 50m, 200m 계영, 200m 혼계영에서 금메달을 보태는 등 5관왕을 차지해 MVP를 수상했다.

'지적장애인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3회 세계지적장애인종합대회(INAS-FID) 남자 자유형 200m에서는 부상을 딛고 우승하기도 했다.

심현화 학생(문화스포츠학부 골프과학과 3)

KLPGA 상금랭킹 1위 노린다!

2011 롯데마트 우승, 상금랭킹 2위 쾌거
골프전문가 선정 'KLPGA 올해를 빛낼 선수들" 선정

심현화 학생(문화스포츠학부 골프과학과, 2)이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KLPGA 상금왕과 US여자 오픈 상위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힘찬 드라이브 샷을 날리고 있다.

주간한국에서 보도한 자료에서 심현화 학생은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이 골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KLPGA 올해를 빛낼 선수들"과 "상금왕 후보 4위"에 선정되었다.

심선수는 작년 4월 17일 서귀포 롯데스카이힐제주CC(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인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프로 데뷔 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해 중원대 모든 구성원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시즌 첫 우승이라는 좋은 출발과 함께 그 여세를 몰아 2011 KLPGA 상금랭킹 2위에 오르는 등 작년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내며 중원대학교의 위상을 떨쳤다.

심현화 학생은 "늘 한결같은 선수로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골프를 즐길 줄 아는 선수로 기억에 남는 선수로 발전하고 싶다"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 석자를 올리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 오른쪽 팔에 부착된 중원대학교 마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심현화 학생(문화스포츠학부 골프과학과 3).

노민상 교수,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한국 최초 수영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 게임 2회 연속 3관왕 육성 공로

중원대학교 노민상교수(스포츠과학부)가 10월 14일 체육의 날을 맞아 체육발전 유공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노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1 체육발전 유공자 포상 전수식 및 제49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훈장을 수여 받았다.

한국 최초의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키워낸 감독으로 지난 2006년부터 대표팀 지휘봉을 잡아오면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은 물론,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공로로 이번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현재 중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와 수영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노민상 교수는 중원대 수영부와 함께 충북지역 수영 꿈나무들을 위한 '중원대학교 수영클럽'에서 초.중등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노교수는 "체육인으로서 최고의 상을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제 2의 박태환 선수를 키워보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고, 충북 수영계는 물론 수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룡장'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 체육훈장 중 최고인 1급에 해당하는 상으로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다.



▲ 노민상 교수(맨 오른쪽)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았다.



▲ 한태희 교수(맨 왼쪽)가 조석 한국사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한태희 교수(에너지자원공학부)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발전유공

에너지자원공학부 한태희 교수가 11월 16일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을 맞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힘써온 유공으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교수는 최근 중원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간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중원대 학생들이 충청권지역의 산업단지내 기업체와의 협업은 물론 재학생들의 인턴활동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행사는 전국 산·학·연·관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산업단지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기 위한 행사이며, 올해로 6번째 열리는 것으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 산단공 이사장, 권평오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김범일 대구시장,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부와 유관기관, 지역 중소기업 등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사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태희 교수는 "산·학·연·관 관계자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산업체와 학교간의 밀접한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원대 스포츠시설 이용안내

1. 중원골프클럽: 9홀(파4-2홀, 파3-7홀)

- 이용시간 : 06:00 -18:00(기상 상황별 변경가능)
- 이용요금 : - 학생: 9홀 8,000원 , 18홀 10,000원
  - 일반: 주중25,000원, 주말30,000원
- 이용문의 : 게스트하우스 (내선번호8500)

2. 연암수영장

- 실내수영장 : 50M , 8레인 국제공인 3급 수영장
- 이용시간 : 평일 06:00-21:00, 공휴일09:00-18:00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휴장)
- 이용요금
  - 성 인 : 1일 4,000원, 1개월70,000원, 강습 80,000원
    (재학생 50% 할인)
- 문의 : 연암수영장 (내선번호8731)

※ 실내전용수영복, 수경, 수모 사용의무.

3. 스포츠센터(장소: 스탠드지하)

◈ 휘트니스센터 : 각 종 헬스기구 완비
- 이용시간 : 06:00-23:00
- 이용요금 : 재학생: 월10,000원 , 일반 40,000원
- 문의: 내선번호 8729

※ 스포츠센터 내 실내 전용운동화 의무사용.

◈ 실내골프연습장 : 연습 타석 : 17타석, 골프존 (게임룸)
- 이용시간 : 06:00-23:00
- 이용요금 : 1개월 일반 100,000원, 재학생:30,000월

◈ 골프존 게임룸
- 게임룸: 2룸
- 이용시간 :06:00-23:00
- 이용요금: 학생: 9홀 3,000원 18홀 5,000원
  후원회원9홀-8,000원, 18홀-15,000원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구 분	세부교육과정	기간	정원	교육시간		학습비	강사
				요일	시간		
골프 아카데미	골프(실전)	15주	15	화,목	10:00-11:00	650,000	최예형
	골프(초급)	15주	15	화,목	13:00-14:00	400,000	최예형
	골프(고급)	15주	15	화,목	19:00-20:00	400,000	최예형
	골프(초급)	15주	15	화,목	20:00-21:00	400,000	최예형
스포츠 웰빙 아카데미	요가	15주	20	화,목	19:30-20:30	240,000	김윤희
	재즈댄스	15주	20	화,목	20:30-21:30	240,000	김윤희
	휘트니스	15주	20	화,목	10:00-11:00	240,000	이재용
	휘트니스	15주	20	화,목	19:30-21:30	240,000	이재용
Global Language 아카데미	영어회화	15주	20	화,목	19:00-20:00	240,000	Claudia
	생활영어	15주	20	화,목	19:00-20:00	240,000	Helen Kim
	주니어영어	15주	20	화,목	17:00-18:00	240,000	Helen Kim
	일본어	15주	20	목	19:00-21:00	240,000	윤사연
교양·정보 아카데미	미술치료 2급(자격증)	15주	20	화	14:00-17:00	300,000	홍경순
	미술치료 2급(자격증)	15주	20	화	18:30-21:30	300,000	홍경순
	리더쉽스피치	15주	20	목	18:30-21:30	280,000	유은경
	포토샵	15주	20	화	14:00-17:00	300,000	이아람
	컴퓨터 활용	15주	20	월	19:00-21:00	240,000	이정일
	사진	15주	20	화	10:00-12:00	240,000	신우식
	동양화	15주	20	화	16:00-18:00	180,000	민경희
	가야금	15주	20	목	19:00-21:00	180,000	신경애
	통기타	15주	20	월	09:00-11:00	180,000	이상권
	문학산책	15주	20	수	16:00-18:00	180,000	김이연
	주역,사주명리학	15주	20	금	19:00-21:00	180,000	김상학
	우리춤체조(건강체조)	15주	20	화	10:00-12:00	180,000	유승숙
	명심보감	15주	20	화	19:00-21:00	180,000	이상주
	다도	15주	20	월	10:00-12:00	180,000	한애란
	전통주빚기	15주	20	화,목	19:00-21:00	300,000	이복순

※ 색소폰과정 매월 초 개강 / 강좌개설제안문의(평생교육원)

등록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 301-0015-4198-61 / 예금주 : 중원대학교평생교육원
전 화 : (043)830-8231~3 / 팩 스 (043)830-8239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번지
중원대학교평생교육원(http://lec.jwu.ac.kr)

괴산(槐山)과 느티나무(槐木)상징

충 북 기 행



김 근 수
향토문화연구소장

우리 중원대학교(中源大學校)가 위치하고 있는 괴산군(槐山郡)의 옛 이름은 고구려 때에는 잉근내군(仍斤內郡)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 괴양(槐壤)으로 고쳤고 고려가 반도를 통일하고 괴주(槐州)로 바뀌었다가 성종연간에 시안(始安)이라 잠시 부르기도 하였다.

고려 현종9년(1018)에는 충주로 붙었다가 감무를 두었으며 조선조 태종3년(1403)에는 지괴주사(知槐州事)로 높였고 태종 13년(1413)10월 15일 이후 괴산(槐山)으로 굳혔다.

이렇듯 괴산이란 지명 변천은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 괴(槐)자, 괴목(槐木)에서 유래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괴산군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100년 이상 된 것이 113주가 있으며 300년 이상 된 나무도 56주가 자리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느티나무 별명이 정자나무로 될 만큼 완벽한 정자나무로써의 품격을 갖추고 있으며 억센 줄기는 강인한 의지를, 고루 퍼진 가지는 조화된 질서를, 단정한 잎들은 예의를 상징한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잎이 먼지를 타지 않아서 항상 깨끗하고 벌레가 적어서 귀인(貴人)을 연상 시킨다. 또한 옛 조정을 가리킬 때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議政府)를 괴부(槐府)라고 불렀다는데 그 유래는 의정부의 뜰에 세 그루의 괴목(槐木; 회화나무, 느티나무)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연유로 해서 왕이 있는 궁궐은 괴신(槐宸), 나라의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아보던 승문원(承文院)은 괴원(槐院), 3정승의 자리를 괴위(槐位), 3정승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로 괴정(槐鼎)이라 불렀다.

괴정(槐鼎)의 어원은 왕권과 중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느티 괴(槐)솥(鼎)과 관계한다.

괴산 시내에서 괴산대교를 건너 중원대학교로 오다보면 우측에 세계최대 괴산군민 가마솥이 있는데 이는 2005년 괴산군과 군민들이 제작한 것이다. 괴산군민 4만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규모로 지름 5,68m, 둘레 17,85m, 높이 2,2m, 무게 43,5톤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괴목(槐木)= 회화나무라 했으나 회화나무는 다릅나무, 아카시아, 등나무와 인연이 가까운데 우리 괴산에는 청안동헌 앞에 400년이 넘은 회화나무가 있다.

느티나무는 보편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지가 고루 뻗고 가지에는 굵고 가는 순서가 조화와 질서를 이루워지고 있는 반면 회화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자유분방하여 스스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 위대성을 창조하는 상징을 갖고 있다.

회화나무는 홰나무라고 부르며 한자어로는 회목(**櫰**木), 괴목(槐木), 회화목(**櫰**花木), 괴화목(槐花木)으로 쓰이고 영어로는 'scholar tree'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화나무의 한자 이름인 '학자수(學者樹)'를 직역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회화나무를 학자수(學者樹),출세수, 행복수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예로부터 훌륭한 가문을 상징하는 집주변에 심었으며 우리 대학교 정원에도 세 그루의 회화나무가 심겨져 있다.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는 『괴목(槐木)』과 같은 어원성을 갖고 있으며 괴산과 연풍동헌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으며, 청안동헌 앞에는 회화나무가 있음을 볼 때 상징적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여도 커다란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 『괴(槐)』자는 아무데나 쓰여 지지 않은 글자이며 이런 엄숙하고 정중한 글자가 천년 이상 지명에 쓰인 곳이 전국에서 『괴산(槐山)』뿐이어서 지명변천과 관련한 느티나무의 상징을 바탕으로 괴산에 자리한 우리 중원대학교가 대한민국 지리적 중심지에서 세계 속의 명품대학으로 발전되길 소원한다.



▲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천년이 넘은 공림사(公林寺) 느티나무를 답사했다. 공림사는 신라 제48대 경문왕(景文王; 861~874)때 자정국사(慈淨國師)가 창건한 절이다.

2012학년도 1학기 JWU 토익강좌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
 가. 학습 대상: 중원대학교 재학생
 나. 학습 목표
  - 토익강좌 참가자 전체 평균 : TOEIC 600점 이상 목표
  - 개별 성적 : 1차 모의토익 점수 기준, 최소 200점 이상 향상
 다. 세부 스케줄 (강의 기간: 2012.3.20~2012.6.7)

강좌	기간	강의시간	인원	요일	강의실
토익LC	총12주	7:30~9:30(PM)	60	화	A302
토익RC	총12주	7:30~9:30	60	화	A302

2. 교재 및 강사
 가. 교재
  - TOEIC LC교재 – ETS TOEIC Listening Prep Book
  - TOEIC RC교재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나. 강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김영아 교수님

3. 수강료 및 장학금 지급
 가. 강좌별 수강료
  - LC Class : 120,000 원
  - RC Class : 120,000 원
  - LC & RC Class 2과목 신청 : 200,000원(40,000원 D.C)
   ※ 교재비 참가자 부담
 나. 장학금

강좌	출 석 우 수 자
TOEIC	12주 100% 출석 - 수강료 전액 환불 (120,000원)
LC/RC	12주 중 10주 이상 출석 - 50% 환불 (60,000원)

※ 단, LC/RC 2개 수업 중복수강자일 경우는 각각의 수업에서 100%출석 시 수강료 전액 환불의 금액이 각 수업 당 100,000원임.

4. 접수일정 및 방법
 가. 2012. 3. 15 (목) – 3. 20 (화) 오후 5시까지
 나. 국제언어교육원 (학생회관 3층) 방문 접수

국제언어교육원

2012학년도 셔틀버스 운행 안내

◆ 운행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30	08:30	08:30	08:30	08:30	08:30	08: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10:00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11:30	11:30	11:30	11:30	11:30	11:30
11: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3:30	13:30	13:30	13:30	13:30	13:30
13:30	14:30	14:30	14:30	14:00	14:30	14:30
14:30	15:30	15:30	15:30	14:30	15:30	15:30
15:30	16:30	16:30	16:30	15:00	16:30	16:30
16:30	17:30	17:30	17:30	15:30	17:30	17:30
17:30	18:30	18:30	18:30	16:00	18:30	18:30
18:30				16:30	18:30	18:30
				17:00		
				17:30		
				18:00		
				18:30		

1. 월요일 운행
 - 오전시간대 (08:30~11:30)
  ⊙ 괴산터미널까지만 운행
  ⊙ 동서울버스 도착시간에 맞게 터미널에서 출발
 - 오후시간 : 평소와 동일하게 운행
  ⊙ 학교→터미널 사거리→군사아파트→경찰서사거리→학교
2. 금요일 운행
 - 귀가하는 학생의 편의를 위해 오후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운행 (단, 정시 출발은 터미널까지만 운행)
3. 운행기간 : 3. 5(월)부터 운행 실시 (단, 방학기간은 월요일 운행 중지 및 금요일 오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함)

◆ 운행노선도
1. 일반운행(적색 점선)
 - 중원대→괴산대교→터미널→군사학교 APT→동인초→경찰서사거리→중원대
2. 단축운행(청색 실선)
 - 중원대→괴산대교→터미널→괴산대교→중원대



사진으로 본 중원대학교 2007~2012



▲ 2007년 하늘에서 바라본 중원대학교 부지



▲ 포크레인의 굉음과 함께 중원대학교의 시작을 알린다.

2007



▲ 본관동 건물의 기초공사가 한창인 2007년 9월



▲ 한층, 한층 그 위용을 들어낸 중원대학교 본관동



▲ 웅장하고 근엄한 모습, 본관동과 학생회관동이 공사가 진행중이다



▲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 방문



▲ 제 1차 교수회의



▲ 교수회관과 산학연구동 건설공사 현장

2008



▲ 신임교원 중원대학교 공사현장 방문 / 격려



▲ 사계 전문가 중원대학교 방문 / 견학



▲ 생활관과 게스트하우스 공사 현장



▲ 200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중원대학교 개교 및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 2009년도 하늘에서 바라본 중원대학교

2009



▲ 5,000여명이 참석한 중원대학교 개교기념 경로효친회



▲ 제 1회 중원축제 현장



▲ 중원대-충북테크노파크 산학연 교류협약 체결식



▲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 2010학년도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체교수회의



▲ 중원대학교 야외문화탐방


▲ 2011학년도 신입생 영어캠프



▲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 2011학년도 학부모 초청 간담회


▲ 중원대학교 수영부 창단식 및 전 국가대표 수영감독 노민상 교수 임용식


▲ 2011 괴산증평교육청 위탁 JWU 영어캠프



▲ 2011 글로벌 리더십 영어캠프


▲ 중원대학교-괴산경찰서 인력양성 및 우호증진을 위한 관학협력 MOU 체결식


▲ 심현화 학생, 롯데마트 오픈 골프대회 우승 환영식

2010 2011 2012



▲ 2010학년도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체교수회의



▲ 2010학년도 스승의 날 행사



▲ 중원대학교 스마일 퀸 & 킹 선발대회


▲ 한미교육(풀브라이트)위원다~ 중원대학교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식



▲ Let's SEN 선포식


▲ 2011학년도 중원축제



▲ 골프클럽 9홀/19홀 증홀 개장기념식


▲ 2011학년도 취업특강



▲ 중원대학교-태국 딸락대학교 MOU 체결식


▲ 2011년 개교 2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


▲ 2012년 중원대학교 전경


▲ 2012년 하늘에서 바라본 중원대학교 전경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중원대학교 역사유적·문화탐방 프로그램 탐방후기



▲ 역사유적·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충주박물관 중앙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원', 그 아름다움을 담아



김 지 니
의료보건학부 간호학과 2학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매달 시행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역사유적·문화탐방' 프로그램을 3년 째 진행되고 있다. 매년 참가 학생들의 탐방후기를 보면서 본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성이 갖춰진 인재'로 다듬어져 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올 한해 탐방후기를 심사한 결과 13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최우수작에 선정된 원고를 게재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사이로 비 냄새가 났다. 깨끗한 냄새, 그 사이로 나는 가을바람냄새. 나는 오히려 날씨가 너무 맑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쨍쨍한 햇빛아래선 금방 지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오늘은 최고의 날이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고, 빗방울이 맺힌 창가자리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시골의 풍경은 언제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앞쪽에서 설명 하시는 것을 들으니 오늘은 중앙탑과 고구려비를 보러 가는 것 같았다.

기다리던 충주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것 같은 나무들은 우아한 미를 보여줬다. 상쾌한 공기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제 1전시관으로 들어가는 내 발걸음이 가벼웠다.

많은 유물들이 있었지만 동경이 눈에 들어왔다. 원앙초문팔릉경이란 이름을 가진 이 동경은 무늬가 정말 예뻐서 한참을 이 앞에서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나 예쁜 거울을 들고 다녔다니 조금은 부럽기도 했다. 1층을 어느 정도 둘러보고 있었을 때 박물관 직원분이 오셔서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외에도 유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해 주셔서 유용했다. 우리가 본 것들 중에는 청자탁잔 이란 것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지금은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잔을 만들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도자기술의 발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잔이라고 했다. 흔히 조선시대에는 유교문화 때문에 화려하지 않은 도자기를 사용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화려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선 점성이 있는 토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에 때라 토양의 성질이 달라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 청자의 푸른색은 코발트 라는 안료인데 이 것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서 외국에서 들여왔다. 외국에서 안료를 들여오는 그 방법이 참 특이하다. 코발트는 페르시아에서 나는 것인데 페르시아에선 이 안료를 우리나라에는 들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코발트가 들어간 예술품을 사들여 푸른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다시 부셔서 사용했다고 한다. 아쉽게도 고구려비는 복제품만 볼 수 있었다.

제 1전시관을 둘러보고 제 2전시관으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방패연이 참 멋스러웠다. 제 1 전시관과 달리 제 2전시관은 개인적인 물건이 참 많았다. 옷이라던가, 안경, 가방, 붓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있었다. 돌아보는 중에 숙종대왕님의 어필전을 발견했는데 서체가 참 단정하셨다. 낙방한 과거시험지도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시험지에서 아쉬웠던 점은 그 곳에 권세있는 친인척과 가족의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박할 때 쓰는 놀이패, 족두리와, 은비녀, 은장도 등을 보며 어디서 이렇게 잘 보관된 유물들이 나왔을까 궁금했었는데 모두 사람들이 기증한 것들 이라고 알려주셨다.

전시관을 다 둘러 본 후에 나는 중앙탑을 보러 갔다. 이 탑의 원래 이름은 중원탑평리칠층석탑인데 이 탑이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앙탑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탑에 가까이 가니 설명해 주실 분이 오셨다. 중앙탑은 7개의 층 위에 소반이 있고 그 위에 스님의 밥그릇인 발우가 뒤집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대기에는 부처님 관이 있었는데 그 구조의 의미는 거꾸로 된 바우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음을 의미해 부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앙탑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잊을 수 없다. 남한강 주변으로 자라는 나무에 바람이 불자 나뭇잎 사이로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했기 때문에 박물관을 등지고 다음 장소로 출발했다.

이번 역사유적 문화탐방지의 두 번째 장소는 누암리였다. 이곳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 했을 때 마을을 통치하기 위해 보낸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말하길 이곳은 풍수지리상 정말 좋은 자리여서 무덤주위를 도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좋다고 한다.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주변 풍경을 둘러 봤는데, 나무의 잎들이 거의 다 떨어져 마치 나무 끝에다 살짝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았다. 무덤가를 걷고 차량으로 가는 사이에 도랑이 있었는데 개구리밥이 귀여워서 사진도 한번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탄금대는 가야의 우륵 선생님이 가야금을 타서 탄금대라고 이름 지어진 곳이다. 탄금대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구름이 점점 개여, 숲이 마치 장막을 벗는 듯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걸어가는 내내 달짝지근한 냄새가 풍겨서 의아했는데 아마 나무에서 나오는 향인 것 같았다.

길가의 웅덩이로 보이는 하늘도 예뻤고,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어서 걸어가는 내내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닥에 깔린 오솔길마저 너무 귀여웠었다. 열두대에서 보이는 경치는 정말 멋졌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노래들처럼 들려서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내내 웃음을 지었다. 열두대에서 보이는 풍경은 환상적이었는데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열두대를 지나면 절이나오는데 이곳엔 커다란 종이 있었다. 계속해서 공원을 돌면서 국궁장도 보았는데 귀여운 강아지가 살고 있었다. 어미 개와 강아지가 함께 있는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다. 공원을 다 돌고나서 돌아가는 버스에서 오늘 하루 이 탐방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정말 즐거웠다고 나는 느꼈다.

재원 없이 급조된 복지정책들



한 형 서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국민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국가재정 능력과 국민소득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장기적인 국가재정계획의 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복지정책들을 보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러한 정책들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선거만을 의식해 백화점식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11년 말 현재 1848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재정상황에 빠져 있다. 또한 국가의 대외적인 수출환경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세계경제도 단기간에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선거를 의식해 복지정책 확대 경쟁으로 들어갔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정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성장 위주에서 분배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재원도 없이 급조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당들이 공약한 여러 복지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조달을 필요로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국가재정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급조해 발표했던 선심성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집행됐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추진 혹은 검토되고 있는 일부 보육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보육정책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될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에 모두 3만8021개 설치돼 있다. 반면 지자체가 지원해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큰데, 이들 시설은 국공립 시설과는 달리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안돼 시설이 열악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무상보육 지원은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지원 확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과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 차등을 두면서 수혜를 받지 못한 가정에서 불만이 많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상보육 지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부담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한계가 따른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균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2012학년도 교원인사 발령

대외협력부총장 이종규 교수
교학지원처장 이태수 교수
의료공학부장 이지연 교수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 겸 경영행정대학원장 신형기 교수(에너지자원공학부) ▲대외협력부총장 이종규 교수(의료공학부) ▲기획경영처장 석수길 교수(사회과학부) ▲교학지원처장 이태수 교수(국제비지니스학부) ▲산학협력단장 김형수 교수(에너지자원공학부) ▲입학홍보실장 나항진 교수(사회과학부) ▲학술정보원장 민승희 교수(국제비지니스학부) ▲국제언어교육원장 홍영숙 교수(교양학부) ▲평생교육원장 김은정 교수(문화스포츠학부) ▲생활관장 김두년 교수(사회과학부) ▲의료공학부장 이지연 교수 ▲융합과학부장 박외숙 교수 ▲한방산업학부장 김도완 교수 ▲에너지자원공학부 한태희 교수 ▲문화스포츠학부장 박영근 교수 ▲사회과학부장 한형서 교수▲국제비지니스학부장 홍승린 교수 ▲의료보건학부장 윤정아 교수

학문방법 차이가 학문결과를 좌우한다



이 상 주
중원대 연구 교수

학문방법의 차이가 학문결과의 차이를 좌우한다. 3월 초에는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개학과 입학을 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최선의 학문방법으로 학력신장에 매진하려한다. 공부방법의 차이가 공부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신학기를 맞아 '논어'에 나오는 학습법을 창용(創用)하기를 권한다. '논어'는 '선인격 후학문'을 강조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까지 죄의식없이 폭력을 자행하고 금품갈취하는 살벌한 사람이 된 것도, 물질만능주의와 인격수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어'에 나오는 학문법을 온고지신하면, 학문으로도 대성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논어'의 내용과 표현의 특징은 언간의심(言簡意深). 즉 말은 간단명료하고 의미는 심장하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함축미 간결미로 계승되었다. 학문과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논어'의 학문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는 너무 많이 강조해서 생략한다.

첫째, '술이(述而)'의 '불분불계, 불비불발'이다. '지식을 탐구하고자 분해하지 않으면 계교(啓敎)해주지 않고, 지식을 탐구하고자 분발하지 않으면 도발(導發)시켜주지 않는다.' 서양 교육학 이론으로 자기발견학습이론, 탐구학습이론에 해당된다. 공부도 맘먹기 달려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둘째, '이인(里仁)'의 '견현사제(見賢思齊)'다. '어진사람을 보면 그 어진 사람과 같아져야 한다.' 모방 반성을 통해 창용의 원리이다. 고려의 '이제현(李齊賢)'은 '논어'의 이 이론을 정명(正名), 즉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 '제현'은 '서경(書經)'의 '숭덕상현(崇德象賢)'을 온고지신한 것이다.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역시 '정명'했다. 제현 상현하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지 않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공자를 본으로 삼으면 공자가 되고 송시열을 본으로 삼으면 송시열이 된다.

셋째, '공야장(公冶長)'의 '불치하문(不恥下問)' 즉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한다.' 한 때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 말이 참신한 견해양 맹종한 일부 몰식견한 사람들은 낙오자의 대열로 갔다.

넷째, '자한(子罕)'의 '후생가외(後生可畏)'다. '후진을 두려워해야한다.' 이 내용은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중 겸손하며, 자강불식 장수유식(藏修遊息)해야한다.

다섯째, '위령공(衛公孫)'의 '언불학이, 역하상사지유(焉不學, 亦何常師之有)'이다. '어디선들 배우지 아니하겠으며, 또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겠는가?' 만인이 나의 스승이요, 만물이 나의 선생이다. 연령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고차원의 학문수준을 구비한 사람에게 배워야한다.

여섯째, '안연(顔淵)'의 '이문회우, 이우보인(以文會友, 以友輔仁)'이다. '문(文)으로써 친구를 모으고, 친구로써 인(仁)을 보충하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경제중산층시대에서 문화중류층시대로 이행한다. 친구들과 문학토론과 예술비평을 하며, 자신의 부족 점을 보충하고 문화적 식견을 제고하자.

'논어'의 학문법을 온고지신 지행합일하면, 앞서가는 고수준의 학문을 할 수 있으며 흥익학문할 수 있어, 자신과 가문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학술정보센터 이용안내

가. 이용시간
1) 자료실: 학기중 9:00 - 21:00, 방학중 9:00 - 17:00
※토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및 그 외 본교 행사일 미개방

구 분	책 수	기 간(일)	연 장(일)
학부생	5	10	10
교 원	25	90	30
직원, 강사, 조교	10	30	30

2) 열람실 : 365일 24시간 개방
나. 도서의 대출/반납 안내
1) 자료대출 권수 및 기간
※DVD는 1일 대출 가능하며 연장 불가
※딸림자료: 해당 단행본의 대출시에만 대출 가능/ 대출기한 동일.
※사전, 연감, 도감, 편람 등 참고자료 : 대출 불가 / 관내 열람 가능.
2) 대출예약 제도
- 열람 중인 도서가 대출 중인 경우 직접 학술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출 예약 신청을 하면 도서 반납 시 예약도서를 우선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음(예약도서 도착 e-mail을 통해 안내함).
3) 도서반납 : 대출/반납실 또는 무인대출/반납기를 통하여 반납
4) 연체도서 처리
가) 대출도서 반납기한 내에 미 반납 : 모든 자료 대출 금지나
나) 모든 연체도서를 미납 경우 : 연체기간만큼 대출 중지
(예) 3책 5일 연체인 경우 : 15일간 대출중지 (3책×5일= 5일)
다) 도서의 대출/반납 안내(e-mail) 서비스
- 도서반납예정 안내(1일전), 예약도서 도착 통보 등을 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함.
5) 희망도서 신청
- 학술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 자료의 서지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선정하여 신속한 시일 내에 구입하여 비치함.

학 술 정 보 원

Do you know 'TED'?

최근 EBS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글로벌 특강 테드(TED)라는 프로그램이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술 · 엔터테인먼트 · 디자인(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의 약자인 TED는 미국 새플링재단이 기획한 강연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감을 지닌 사람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테드의 기본정신은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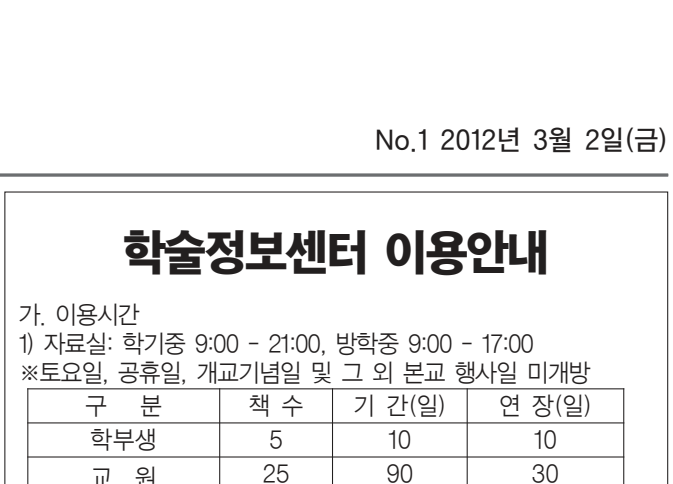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18분 동안 혼신을 다해 발표한다. 이야기의 주제와 분야는 종횡무진. 심리학, 철학, 디자인, 과학, 음악, 미술, 운동, 종교, 교육까지 모든 분야를 넘나든다. 뇌종양을 앓은 적 있는 하버드 출신의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죽음과 해탈에 대한 이야기, 지구 곳곳을 다 다녀본 인류학자가 말하는 인간의 보편성, AI의 아버지 마빈 민스키가 말하는 인공지능 이야기에서부터, MIT 미디어랩의 네그로폰테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100불짜리 컴퓨터 이야기, 트위터의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가 들려주는 인터넷 이야기까지 TED는 여기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들로 가득찬 컨퍼런스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록그룹 U2의 리드싱어 보노, 유인원 연구자 제인 구달, 음악가 허비 행콕 등도 테드를 강연했다.



▲ 빌 게이츠 테드 강연 모습

지난 11월 9일에는 EBS TV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강연을 방송했다. 강연주제는 '민주적 토론 기술의 상실((The lost art of democratic debate)이었다. 샌델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내용과 현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이어 11월 1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테드 강연이 소개되었다. '주정부 예산은 어떻게 미국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나(How state budgets are breaking US schools)'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게이츠는 각 주(州)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를 비판하고, 시민들이 주정부의 예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공교육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테드 동영상을 통해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어휘들과 설득력있는 문장구조, 각 영어권 특유의 발음 심지어 그 단어를 사용할 때의 미세한 표정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자막까지 입력해 놓기 때문에 자막과 함께 강의를 볼 수 있다.

공식사이트(www.ted.com)에 들어가면 강연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테드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테블릿 PC로도 이용 가능하다.

2011년 최고의 앱?



아이폰과 스티브잡스 애플과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

지난 해 11월 9일, 애플은 한국 아이튠즈를 통해 최고의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는 '앱스토어 리와인드 2011(App Store Rewind 2011)'을 발표했다. 이는 애플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상식이다.

이번 '앱스토어 리와인드 2011'에서 선정된 '올해의 iPhone App' 부문에서는 '편한가계부 Pro(+PC가계부)'가, '올해의 iPhone 게임'에는 시뮬레이션 게임 'Tiny Tower'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올해의 App 러너업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다이어리, 스케줄 관리에 좋은 '어썸 노트 (+To-do/Diary)'와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영국문화원 단어장'이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앱스토어 카테고리별 베스트 5를 선정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주고 있다.

한편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12월 8일 코엑스에서 올한 해 동안 발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스마트앱어워드' 시상식(대한민국 앱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스마트앱어워드는 한 해 동안 새로 개발되거나 업데이트된 모바일 앱들을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전문가 1500명으로 구성된 스마트앱어워드 평가위원단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디자인, UI/UX, 기술, 콘텐츠,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모바일 앱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우수 모바일 앱 평가 및 시상행사이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의 스마트앱어워드 최고대상은 'CGV 영화예매'(CJ CGV소속, 플러스 엑스 제작)가 받았으며, UX이노베이션 대상에는 '1km'(이모션)가, 콘텐츠이노베이션 대상에는 '돈텔보스'(잡코리아), 디자인이노베이션 대상에는 '르노삼성자동차 All-New SM7 디지털 브로셔'(르노삼성자동차 소속, 미디어포스 제작), 기술이노베이션 대상에는 'T스탁'(SK 플래닛 소속, 에이티솔루션 제작), 서비스 이노베이션 대상에는 '차이홍베이징'(대교 소속, 인터메이저 제작), 마케팅이노베이션 대상에는 '11번가'(SK 플래닛 소속, 커머스플래닛 제작)가 선정 되었다.

부문별 통합대상에는 기업비즈니스 부문 'CJ CGV'(CJ시스템즈), 생활서비스 부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쇼핑 부문 '11번가'(SK 플래닛 소속, 커머스플래닛 제작), 정보서비스 부문 '1km'(이모션), 기능서비스 부문 '코카콜라 폰테마'(한국 코카-콜라 소속, 인크로스 제작), 교육문화 부문 '차이홍베이징'(대교 소속, 인터메이저 제작)이 선정되었다.

기타 특별대상에는 KIPFA 특별대상 'PNS 더존샤시'(PNS 더존샤시 소속, 픽스 제작), 월간웹 특별대상 '내사랑 독도'(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정보시스템/인포바인 제작)이 수상했다.

중원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



김 두 년
법학과 교수

작년 7월 난항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골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검경수사권조정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개정된 검찰청법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난 몇 대 정권에 걸쳐서 장기간 논의되어 왔던 검경 수사권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고 특히 경찰측에서는 집단반발하는 양상까지 전개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절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통해 경찰을 통제했고 경찰을 검찰의 하위기관 으로 취급했다. 경찰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의 도구로 전락하였던 이미지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고문경찰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일반국민들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절대로 부여할 수 없고 항상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 사건 수사에 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검사우위의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에게 과거 고문경찰과 같은 이미지는 거의 사라졌고 사법경찰에게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 주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금번 검경 수사권조정은 경찰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수사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의 개시에서 종결에 이르기 까지 수사의 전과정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도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에도 상명하복식의 수사지휘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우리처럼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지시만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 법집행의 일선에 있는 경찰과 검찰은 상호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면이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기관에 두면 그만큼 견제와 감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은 검찰과 경찰이 종속적인 관계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고 양 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활동할 때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통하여 경찰을 견제하고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종결 처분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마침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가장 인권침해를 많이 하는 집단으로서 전문가들은 검찰을 일반인들은 경찰을 1순위의 인권침해기관으로 꼽았다. 국가 인권 침해는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며 국가 공권력이 앞장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아직도 국가 공권력의 핵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인권침해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권한다툼이나 권한 배분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가적인 재편과제이기 때문에 검경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 경우 어느 쪽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인권기관인가에 따라서 그 관할권의 향배가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지구의 비밀, 화석' 특별기획전 개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미동산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특별기획전 '지구의 비밀...화석' 전을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동물화석 50여 점을 공개하는 자리로,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귀중한 화석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기간 중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단위로 화석탁본 찍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화석의 생성과정을 알아보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고, 입장료는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2012년 대학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20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2012년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로 『철학이 필요한 시간』(강신주, 사계절) 등 20종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책선정위원회는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의 기본 소양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년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2012년 추천도서로는 대중들과 만나 소통하며 철학을 강의해 온 저자가 현실감이 넘치는 철학적, 인문학적 사유를 제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삶을 직시하도록 조언하고 있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강신주, 사계절), 원시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류 생활양식의 근거를 분석한 책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흥미로운 교양 문화서 『문화의 수수께끼』(마빈 해리스/ 박종열, 한길사), 본능에 충실하고 유쾌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리스인 조르바』(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윤기) 등 총 20종이 선정되었다.

순번	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1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궁리
2	괴짜경제학	스티븐 레빗 외/ 안진환	웅진지식하우스
3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김희정 외	부키
4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윤기	열린책들
5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만/ 김인자	물푸레
6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	디 브라운/ 최준석	한겨레출판사
7	나목	박완서	세계사
8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외	길
9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한길사
10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박종열	한길사
11	복지국가	정원오	책세상
12	세속의 철학자들	로버트 하일브로너/ 장상환	이마고
13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	이영미	두리미디어
14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외	을유문화사
15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창신	김영사
16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홍대화	열린책들
17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사계절
18	칼의 노래	김훈	문학동네
19	코스모스	칼 세이건/ 홍승수	사이언스북스
20	토지	박경리	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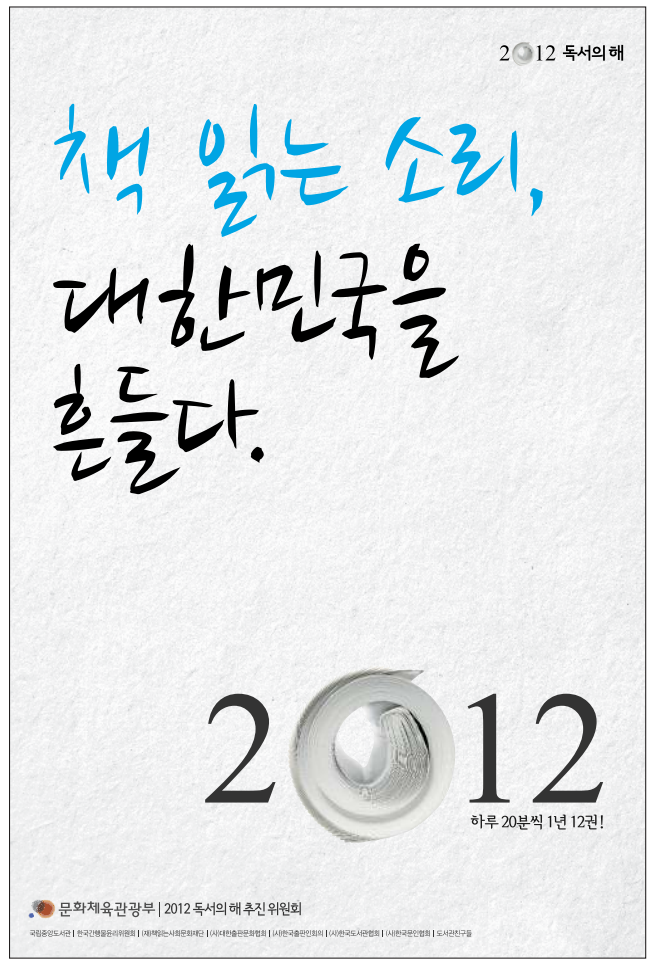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2012 독서의 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을 '독서의 해' 로 지정하여 책 읽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독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문화부가 최근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국민의 독서율이 2004년 76%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전년보다 1.4%p 증가한 66.8%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독서력 증진을 위해 영국은 1998년과 2008년에, 일본은 2010년에 '독서의 해' 를 추진한 바 있으며, 호주는 2012년에 '독서의 해' 를 추진했다.

문화부는 '독서의 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출판, 도서관 등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의 해 추진 방안 및 홍보 자문, 독서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생활 속의 독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원대 교수님들이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책 말

◈ 박안숙 교수(간호학과)



1. 신입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심리학서 " 가끔은 제정신" 추천합니다. 재미있게 제정신이 들게 하지요

◈ 임지은 교수(기업경영학과)



1. 박형미 '벼랑끝에 나를 세워라" / 이지선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 이지성 "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손자병법

◈ 김두년 교수(법학과)



1. 세계사 101장면(김희보 지음, 가람기획)

- 역사는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는 필연적으로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미래의 역사가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원인을 들여다 보면 오늘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2. 물은 우주 생명의 근원이다. 식물들은 물을 찾아 쉬임없이 뿌리를 뻗어가고 동물들은 끊임없이 물가로 찾아든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좋은 샘물가에 둥지를 틀어라. 평생 먹을수 있는 넓고 깊은 우물을 파라. 친구와 이웃과 함께 샘물을 나누어 마셔라. 우물이 마르면 친구도 이웃도 떠날 것이다.

◈ 한형서 교수(경찰행정학과)

1. 배려(저자: 한상복)

◈ 박민규 교수(방재안전학과)

1. "그러자 갑자기 발명가가 나타났다"(겐리흐 알트슐러 저)

- 이 책은 발명에 필요한 많은 효과적인 사고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곳", 즉 발명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에 접근할 때 필요한 수많은 사고방법과 과학적 지식들이 체계화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번역체가 읽기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내용자체는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창의설계, 창의공학 과목의 표준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 놀라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혹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보다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만나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대학의 전공, 두번째는 직업의 종류 그리고 세번째는 결혼입니다. 첫번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마친 신입생 여러분들이 본인의 판단을 믿고 보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학교생활 동안 주어질 시간들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보다 뜻깊은 시간들의 초석으로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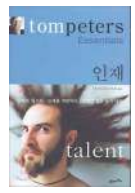
◈ 이남주 교수(스포츠건강의학과)



1.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저자: 류시화, 1998년 도서출판 열림원)을 추천합니다.

2.If you make it, just do it.

◈ 황태영 교수(한방식품공학과)



1. Tom Peters essentials (톰 피터스 에센셜) 4권 중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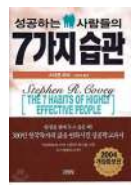
- 경영학의 구루인 톰 피터스가 말하는 우리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을 보고, 스스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에센셜 시리즈를 모두 보시길, 얇은 에센셜 본입니다!

2. Break a leg! (=최선을 다하다) 각자가 캐낸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보물섬(대학)에 도착하심을 환영합니다.

다리가 부러질만큼(?) 최선을 다하는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그리하여, 갖은 금은보화를 챙겨 자랑스런 중원인으로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 박영근 교수(골프과학과)



1. 신입생 추천도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 재학생 추천도서: The Great Reckoning" -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prepare"

◈ 안조근 교수(산업디자인학과)



1. 디자인의 꼴 물건의 진화론(사카이 나오키 지음, design-house)

- 이 책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물건의 형태(꼴)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건들의 형태(디자인)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왔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디자인 에세이입니다.

2. "만난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 -탈무드" 배움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는 사이 알고싶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부끄러워 마세요, 모르니깐 배우는거지 알면 배울 필요가 없겠지요. 모르면서 아는채 눈감고 귀닫고 입막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배울때는 모든것이 낯설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바퀴로 과연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만 하면서, 두려워만 하면서는 절대 무언가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용기를 내어 힘차게 도전해 보시기바랍니다.

◈ 김형수 교수(신재생에너지학과)



1. "꽃들에게 희망을" 저자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예쁜 그림책인데, 인생의 방황과 결실을 생각하게 하는 데 30분만 투자하면 충분하게 해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 Not All Wander are Lost" 젊은 분들 많이 방황하세요 그러나 길을 잃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큰 아이가 사춘기 때 방문앞에 써 붙이고 시위하던 문구입니다. 사랑합니다.

◈ 한태희 교수(첨단소재공학과)



1. 놓치고 싶지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저자: 나폴레온 힐)

2.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 3시간씩 10년간 투자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홍승린 교수(일본통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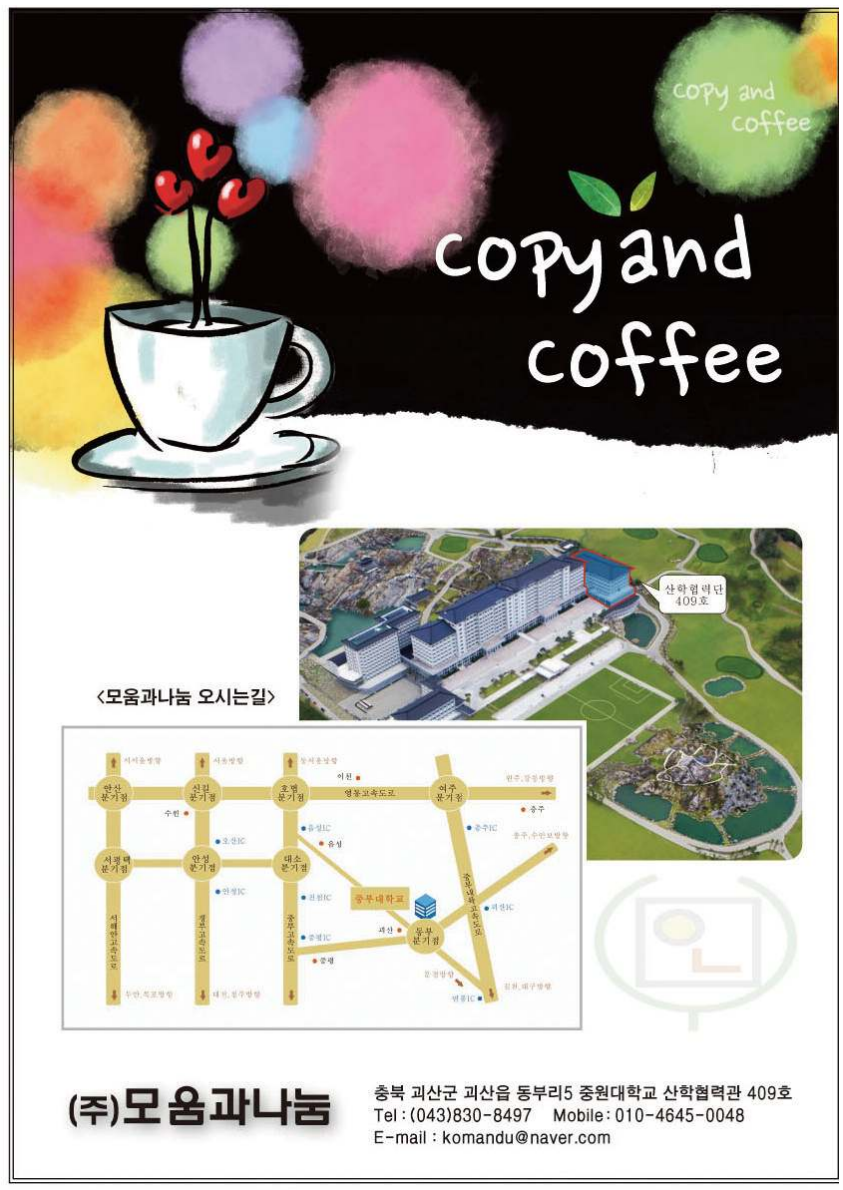


1. 마케팅 불변의 법칙(알 리스, 잭 트라우트 지음)

2. 엄이도종(掩耳盜鐘), 소통과 대화의 기술은 입이 아닌 마음이기에 마음을 열어야 귀와 입도 열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기분좋은 소통으로 서로 도와가는 학교생활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ENGLISH
영어는 LOGIC의 구조로 말하는 언어이다.



김 영 아
교양학부 교수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다는데 무엇이 다르다는 것 일까요?

다음의 간단한 예문 두 개를 읽어봅시다.

a. 탁자위에 놓여있는 사과하나.
b. One apple on the table.

그리고 이번엔 조금 긴 예문 두 개를 읽어봅시다.

c. 그들은 그 협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투표 전에 11시간동안 논쟁했다.
d. They wrangled for 11 hours before voting to accept the pack.

예문들을 설명하기전에 영어의 특징을 요약한 이 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어는 Logic 의 구조로 말하는 언어이다."

그럼, 한국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어는 토씨(조사)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나**를** 그녀**는** 사랑한다" 에서 처럼 토씨에 따라 주어가 되기도하고 목적어가 되기도합니다.

다시말해 단어의 순서는 그대로 이지만, 단어뒤에 오는 토씨를 바꾸어 줌으로써 단어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이에 반해 영어는 위치와 어순에 의해서 문법적 기능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Logic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 어순 그대로 옮겨 말하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I 는 she 를 love." 나 " I 를 she 는 love" 라고 말하지 않는한 말입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토씨와는 상관없이 그 단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자는 단어의 위치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시합니다.

예문 a,b,c,d에서 볼 수 있는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차이는 어순(단어가 있는 위치)입니다. 예문a. b모두 "탁자위에 있는 사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탁자를 먼저 언급하는 반면, 영어는 사과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언어의 재미있는 사고 차이를 알수있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반영하니까 말이죠. 한국어표현에 탁자가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탁자가 그 공간에 먼저 존재했을 것이고 그 후에 사과가 놓여있게 되었을 테니 당연히 탁자가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사과가 공중에 탁자높이쯤 떠 있지는 않았을 테니말이죠.

반면에 영어는 화자가 말하고자하는 중심, 핵심의도를 '먼저말'로 제시합니다.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사과이기 때문에 논리상 사과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영어는 화자가 중요시여기는 핵심이 '먼저정보'임으로 먼저말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정보는 나중말이 되는것이 영어의 논리입니다.

다시말해, 화자가 말하고자하는 결론, 화자의 감정, 화자가 강조하는 정보, 사건의 결과등을 먼저말로 배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영어을 바르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문d 는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d. They wrangled for 11 hours before voting to accept the pack.

화자의 의도는 그들이 11시간이나 논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They wrangled for 11 hours가 먼저말이 되고, 그 이유나, 상황설명등은 나중말이 됩니다.

한국어예문은 c. 그들은 그 협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투표전에 11시간동안 논쟁했다.

'먼저말'과 '나중말'의 순서가 영어와는 반대입니다. "논쟁했다" 가 가장 나중에 위치하고, 상황설명이나 이유, 조건들이 먼저 언급됩니다.

'먼저말'과 '나중말'의 배열이 한국어와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몇개의 간단한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1. 그는 어리지만 현명하다.
(※한국어 표현에 밑줄 그은 말이 먼저말이 되어야 합니다)
He is clever for a child.

2. 현명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현명해진다.
A wise man grows wiser with age.

3. 그녀가 가버린다면 세상은 얼마나 외로워 질까!
What a lonely world it will be with her away!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한국어로 떠오른 생각을 영어로 옮길때는 '먼저말'과 '나중말'의 위치를 영어의 논리대로 배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핵심이며, 첫 작업입니다.

즉, 화자의 중심생각, 핵심의도, 감정, 사건의 결과 등이 먼저정보임으로 '먼저말'이 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다보면, 어느 덧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생각하여 영어로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꾸준히 하셔야 됨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2012년 대기업 입사 '토익 커트라인' 705점
대기업 64.0%, 토익제한 없다 vs 56.3%, '영어 면접' 시행

올해 주요 기업들의 신입직 공채 시 토익이나 토플 등 서류전형에서 어학점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회화 능력 테스트 등 영어면접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국내 주요 기업 401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신입 공채 프로세스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2012년 신입직 공채 입사지원 시 토익이나 토플 등 어학점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기업은 33.9%로 10개사 중 4개사에도 못 미쳤다. 이는 지난해 공채 시즌(38.1%) 보다 4.2%P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기업형태별로는 외국계 기업(79개사)의 경우가 토익 점수 제한이 있는 기업 비율이 20.3%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대기업은 36.0%였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는 44.0%로 아직까지 신입공채에서 어학점수 제한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토익이나 토플 등 어학점수 제한을 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136개사) 입사지원 가능한 평균 어학점수는 토익기준 평균 705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외국계기업이 689점으로 입사지원 가능 토익 커트라인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인 698점 이상, △공기업은 739점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주요 기업 중 10개사 중 6개사 정도는 올해 신입직 채용 시 영어 면접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30.9%는 신입직 채용 시 직무상관 없이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어면접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20.4%는 직무별로 부분 시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8.6%는 신입직 채용 시 영어면접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면접을 직무별로 부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 중에서는 △해외영업 및 업무관련 분야가 응답률 64.6%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관리/지원 17.1% △영업/마케팅직 12.2%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기업 20.6%는 오픽이나 토익스피킹 테스트 같은 영어말하기 어학점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비해 공기업의 경우는 8.0%로 아직까지는 적었다.

입사지원 시 학점 제한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비중으로는 대기업은 36.0%가 학점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비해 △외국계 기업 16.5%, △공기업 2.0%였으며, 학점제한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입사지원 가능한 평균 점수는 3.0점 이상(*4.5만점 기준)으로 집계됐다.

괴산군민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원대상
- 괴산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괴산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지원금 : 1인당 250,000원(괴산사랑상품권)
  - 1년차(6개월후) : 전입지원금 100,000원 (1인 1회)
  - 2, 3, 4년차 : 각 전입지원금 50,000원
  - ※ 전입일 기준 2년차 이후 전입지원금 수령대상자는 기간 내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함
- 대학생 근로활동(아르바이트) 선발시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

❍ 신청절차
- 괴산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괴산읍사무소에 신청
-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등 추가 부담 없음

❍ 접 수 처 : 중원대학교 지정장소
(매주 목요일 10시~16시까지 읍사무소에서 학교로 출장하여 접수)

※ 문의전화 : 830-2419, 2420

괴 산 군

2011년 필리핀 어학연수 체험기

영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라!

학교 영어집중수업 연수효과에 도움, 영어와 해외문화 동시에 배워



세계화로 인해 공용어인 영어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어학연수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어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듣고, 오후시간에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SM City, Iloilo Museum등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만 영어공부를 하다보니, 내 영어가 외국에서도 통할까 하는 의구심 같은 것이 있었고, 영어를 공부하는 내내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연수를 가고 얼마되지 않아, 괜한 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에 입학한 후, 2주차 되던 날에 English Speech Contest가 있어서,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2위에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해왔던 영어수업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영어에 접해 있다보니, 보다 더 영어에 친숙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튜터와 1:1로 진행되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한국에서의 수업과 달리,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습방식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이란 시간은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짧은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어학연수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얼마나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학연수를 무조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영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영어실력은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눈으로 보긴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어권국가에서의 생활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눈을 가지게 해줍니다. 항상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영어가 친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영어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기 전에 안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필리핀은 총기소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분쟁지역을 제외하곤 안전합니다. 모든 시설엔 총기를 소지한 경찰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저는 한국보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리핀도 한국처럼 타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엄청 여유로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살아가고,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도 삶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졌습니다. 귀국 전에, 휴일이 있어서 보라카이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보아왔던 화이트 비치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순간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해변과 주위의 코코넛 나무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필리핀에서 보았던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은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사람들의 영어실력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느낀 거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할 줄 알고, 대부분 한국사람들 보다 훨씬 영어를 잘합니다.

필리핀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Taglish라는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도 공용어처럼 사용합니다. 세계 제 3의 영어사용국이란 명성은 괜한 얘기가 아닌 듯 합니다.

〈글 = 신재생에너지학과 4년 박병학〉

괴산군 고부가 기능성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1. 초빙분야 / 자격조건 및 인원
   가. 분야 및 인원 : 연구원 및 직원 각 0 명
   나. 자격 조건
      1) 연구원
         - 전공 : 바이오(식품, 생물, 농학 등) 분야 관련 전공자
         - 학력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 관련분야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우대 / 정부부처 관련 사업 경력자 우대
      2) 경영 분야 직원
         - 전공 : 무관함
         - 학력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경력 : 관련분야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우대 / 정부부처 관련 사업 경력자 우대
      3) 기타 사무보조 직원 : 자격 조건 없음
   다. 업무 분야
         - 세부 사업 수행 및 관리 / 관련분야 연구개발 / 사무보조는 일반 사무 보조

2.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다운 받아 사용)
   나. 자기 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운 받아 사용)

4.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3. 28(수) ~ 2012. 3. 30(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나. 접수처 : (367-805)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5.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지)

6. 기타
   가. 근무기간 : 2012. 4. 1 ~ 2012. 12. 31(9개월, 근무평가 후 연장 가능)
   나. 보수 : 면접 후 협의(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다. 계약형태 :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계약
   라. 임용이 결정된 후 경력증명서 등 증빙사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름
   사.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043-830-8403) 혹은 사업단장(830-8612) 연락 요망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Alex의 눈에 보이는 영어



Alex Hwang
교양학부 교수

Wear vs. Tie up

‘ 머리를 ~식으로 묶다’ 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쓰임이 조금 다르답니다.

Wear은 영어에서 옷을 입을때도, 신발을 신을때도, 안경을 낄때도 꼭 사용하는 단어로 몸에 무언가를 걸치거나 덧 입힐때 쓰는 단어랍니다.

예를 들어, "I wear my glasses." "You have to wear that shoes in this room."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던 어떤 형태를 몸에 더한다는 의미로 ‘wear+머리형태’ 로 쓸 수 있어요.

I wore a ponytail 난 한 갈래로 묶었어. (wore는 wear의 과거형이지요.)

Tie up은 “묶다”라는 의미 그대로 사용해요. “흩어져 있는…것들을~한 형태로 모은다” 는 의미로 ‘Tie up…. into(in) ~’ 란 형태로 사용해요.

머리를 묶는다는 표현에서는 tie up 보다는 wear 이 사용 빈도가 높아요.

tie up 도 틀린표현은 아니지만 wear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자연스럽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tie up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I tied up my hair 난 머리 묶었어.

wear와 tie up 둘다 머리를 묶는다는 표현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둘 중 어떤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고 원어민에게 더 익숙한 표현인지 알아둔다면 원어민과 대화하실 때 더욱 정확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겠지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고품격 **보양온천**을 갖춘 전국최고의 **온천실버타운!**

– 동해 **약천온천**실버타운



국내 최초 **지열** 냉·난방 시설과, 국내 최고 수질인 **지장청수**와 **지장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
고품격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
2박 3일, 일주일, 한달 – 요양 · 휴양 체험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방


주방


거실


자연연못 및 폭포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실내수영장


자연황토 지장수탕


지장수 온천탕

山과 바다가 어우러진 동해 망상해변 약천곡에 전국 최초, 최고의 **보양온천**을 개발하여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과 **실내 수영장** 및 **야외 수영장**을 구비하고 국내 최초의 친환경 및 자연 **지열**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전층 각 세대마다 **스톤 대리석**에서 **음이온**이 발생되어 건강과 활력적인 삶을 제공하고, 전 세대에서 멋진 동해 일출을 만끽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동해샘물**에서 생산되는 **"지장청수"** 를 직접 공급하고 입주한 어르신들의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위하여 **웰빙음식**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동해藥泉溫泉 실버타운
Donghae Yakcheon Oncheon Silver Town

문의전화 (033)534-6502, (033)534-6504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459-10

수영장회원모집
국제회의,세미나
단체연수
각종행사

세계속의 명품 온천
海水 地獎水 補陽溫泉

사계절요양휴양
2박3일요양휴양
3박4일요양휴양
일주일요양휴양

찜질방과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기 요양과
장기 휴양 체험숙박을 해 볼수 있는 국내 유일의 호텔 보양온천!



국제규격50m 8레인 실내수영장 야외풀장


실내수영장


해수바데풀


온천탕


야외수영장


국제회의실


웨딩홀


객실


스포츠센터

온 천
국민보양온천

보양온천이란 우리인체에 유익한 각종 미네랄이 포함된 온천을 말하며, 특히 체력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을 말하고, 신진대사 촉진, 중추신경의 활성화, 혈관확장, 동통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온천을 말합니다. 보양온천 바로 앞에는 명사십리 망상해수욕장이 위치하고, 국제 규격의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을 구비하고 있고, 최초의 친환경 냉 · 난방시설을 갖추고 각 객실마다 음이온이 발생하는 스톤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건강과 활력적인 삶을 제공하고 전 객실에서 멋진 동해 일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계절 휴양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東海보양온천 컨벤션호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396-18(망상해수욕장 앞)
문의전화 (033)530-0700~2,0720,0800
www.mangsanggrand.co.kr